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128호 【루계 제24906호】 주체104(2015)년 5월 8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몽골인민혁명당 대외관계담당비서인 즈. 바뜨바야르단장이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3일과 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지휘소를 훌륭히 건설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성은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조선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최첨단설비들을 더 보강해주고 우주와 꼭같은 환경속에서 위성시험을 할수 있는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해주며 위성관제시설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상징물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이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선택한 길, 선군조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엔떼웨TV방송, 스뿌뜨니크방송, 마야크방송, 인터네트통신 루쓰까야 쁘라네따, 이란의 신문 《이란 데일리》, 프레스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 캄보쟈신문 《꼭 쏜때피앱》, 미국의 VOA방송, 브라질의 인터네트홈페지 《마르쟈 베르데》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 이란, 브라질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이북땅에 거연히 솟은 근로민중의 정권

남조선 각계가 찬탄

남조선 각계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정치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한민족복지재단》 성원 김강련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먹장구름이 뒤덮였던 이 땅에서 설음만을 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북에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들이 주인된 민중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주석님께서 세워주신 이북의 사회주의제도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포성을 행성우에 높이 울렸다. 진정 이북민중은 이 세상 누구도 지닐수 없는 수령복, 장군복, 제도복을 누리고있는 가장 행복한 민중이다.

울산의 로동자 김원일은 이북에서는 해방후 민중적인 로동법령을 내놓아 지난날 착취받고 천대받던 근로민중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었으며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책들을 펴왔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우리같은 로동자들이 나라의 정사에도 참여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고 근로민중모두가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있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한 대학교수는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북처럼 근로민중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정권은 찾아볼수 없다, 누구나가 평등하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뿐아니라 민중중심의 복지사회를 펼쳐가는 정권, 이것이 이북땅에 거연히 솟은 진정한 근로민중의 정권이라고 격찬하였다.

인천의 한 과학자는 이북의 지식인들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신 김정일장군님은 지식인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지성의 길로 선도해주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지식인 리영화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대하실 때마다 먼저 로동자들부터 생각하시고 그들의 리익을 중심에 놓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충청북도 충주의 한 로동자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로고가 있었기에 《이북의 근로자들은 랑만과 희열에 넘쳐 로동으로 자신들의 참된 삶을 꽃피우며 앞장에서 시대를 영웅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다.》고 언명하였다.

광주의 한 로조원은 근로민중의 무궁무진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불러일으키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는 이북이 경제강국을 향해 보무당당히 나아갈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위훈떨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세찬 격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 재야인사는 오늘날 이북이 근로민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로, 백승만을 아로새기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며 세인의 경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혁명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정치가 위대하기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로동자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고계시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련합뉴스》, 《세계일보》, 《통일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해 널리 보도하였다.

현대사연구원의 한 성원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헌신과 로고로 하여 이북에서는 창조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가고 모든 근로민중이 희망과 신심에 넘쳐있다고 격정을 터쳤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앞장에 설 드높은 열의

대동강유보도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공사에 떨쳐나선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대동강반을 보다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옥류교로부터 대동교까지 량안기슭의 유보도를 전부 들어내고 그 어떤 홍수에도 끄떡없는 만년제방을 쌓는것과 함께 유보도를 보다 훌륭히 건설하며 원림조성을 특색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 거창한 규모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근 10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1만 천여㎡의 장석을 쌓는것과 함께 수만㎡의 유보도포장과 원림형성을 동반하고있는 공사는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 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가 그 어떤 큰물피해도 받지 않도록 대동강유보도를 새로 잘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수행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대동강유보도를 새로 잘 건설하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 강력한 공사지휘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동강유보도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공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전투현장에 뛰여들어 공사에 떨쳐나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대상공사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앞장에 선 수도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대동강반을 들었다놓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쉬임없이 울리는 속에 공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시공지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최정호, 림철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일군들은 전투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 대책하며 공사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들은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높아지는 공사속도에 맞게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전반적인 구간의 이미 있던 유보도를 들어내기 위한 공사가 전반적으로 끝나고 석축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중구역과 만경대구역이 제일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리고 있다.

중구역의 일군들은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을 핵으로 하는 정신이며 속도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공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이미 있던 유보도를 들어내는 일과 기초공사를 예정된 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만경대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속도창조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실천적성과로 보답해갈 드높은 열의밑에 시작부터 맡은 대상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며 힘있게 내달리고있다.

중앙열망사업소와 창광원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1950년대에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은 평양속도창조자들처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창조가 될 불타는 열의에 넘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들이대며 날과 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평양시대동강건설관리국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사의 돌파구를 자신들이 열어제껴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여 공사에 필요한 돌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웅벽 및 계단기초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난데 맞게 2단계목표를 다시금 높이 세우고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낄 기세로 공사를 적극 내밀고있다. 지휘부일군들은 장마철전으로 기어이 공사를 결속할 열의밑에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최단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낼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대동강유보도를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는 즐거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는 나날이 그 성과가 확대되여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물길굴확장공사와 콩크리트피복공사 진행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대상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말까지 107만여㎥의 토량 및 암반을 처리하고 1만 3천여㎥의 물길굴확장공사, 10만 4천여㎡의 콩크리트피복공사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공사작전을 대담하게 하고 적극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물길굴확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 흙물길공사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로력, 자재를 총집중하면서 다른 대상건설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결사관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으로 황해남도물길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려단들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중앙지휘부와 모든 려단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 증산절약투쟁,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결국 수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였다.

일군들은 성과가 오를수록 공사장에서 앞채를 메고 달리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산악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일 각오를 안고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중앙지휘부에서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고 모든 려단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물길굴확장공사와 흙물길, 콩크리트피복공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각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힘찬 투쟁을 벌려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밑에 혁신을 일으켰다.

자강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기술혁신은 새 기록, 새 기적창조의 원동력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대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해나갔다. 용기백배하여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결과 휘틀대신 블로크를 리용한 면벽콩크리트피복공사방법, m공법에 의한 물길굴확장 및 콩크리트피복공사방법을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맡은 물길굴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남포시려단 일군들은 공사의 성과여부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앞채를 메고 달리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분발해나선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갔다. 그들은 암질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함경남도려단에서는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여나갔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 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내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난관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착암기를 돌리였다. 그리고 걸린 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흙물길공사를 맡은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밑에 산악같이 떨쳐나 석달동안에 80만여㎥의 토량과 암반을 처리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황남땅에 생명수 흘러넘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일군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전투조직을 더욱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조국강산을 인민의 락원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에서 봄철국토관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시, 군들에서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명백히 주고 그 실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신도1호제방성토공사를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켜 공사를 적극 내밀고있다.

신도1호제방성토공사에 떨쳐나선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사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맡은 공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흘리고있다.

2만 6천㎥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서북—견일제방보수공사를 맡은 룡천군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해일과 큰물에도 끄떡없게 제방보수를 질적으로 하였다.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북부연선지대 도로들을 포함한 도의 전반적인 도로들에 대한 정리와 확장공사, 기술개건사업에도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에서는 도로건설려단과 산하 시, 군도로건설대력량을 동원하여 1 500㎥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어느 한 도로폭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도로들의 안전보호벽을 보수하고 안전보호말뚝을 새로 세우면서 1 750개의 도로표식기를 제정된 규격대로 제작설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 강하천정리를 비롯하여 국토를 보호하고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삭주군에서는 수풍호호안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를 마지막단계에서 벌리고있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락원지구의 강바닥정리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곽산군에서는 최근 몇해동안에 소층살림집들과 미래원을 건설하고 공원을 새로 꾸리는 등 군소재지를 훌륭하게 전변시키고있다.

도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는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모든 시, 군들에서 1만수천정보의 산에 5100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자강도에서

자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 일군들과 강계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계시의 거리마다에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가로수를 심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은 강계시 거리들에 좋은 수종의 가로수들을 더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전종남동무를 비롯한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은 도소재지의 거리들과 장자강유보도와 문화휴식터주변에 록음이 우거지고 과일향기가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봄철나무심기계획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도급기관들과 시급기관들에 나무심기과제를 명백히 주고 성간군양묘장을 비롯한 여러 양묘장들에서 필요한 나무모들을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도급, 시급기관들의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나무심기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새겨주는 정치사업이 실속있게 벌어졌다.

도의 도시경영부문의 일군들은 나무심기에서 기술규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봄철나무심기에서는 체신관리국, 금강관리국, 탐사관리국, 도인민병원을 비롯한 도급기관들이 모범을 보이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이 나무심기가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거리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 심은 나무들의 보호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해나가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봄철나무심기에 동원된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장자강기슭의 유보도를 따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새로 심어졌고 서산, 강서, 류동, 연풍, 석현지구의 거리들에 살구나무, 들메나무,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도소재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와졌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와 강계시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강계시안의 유원지, 공원, 휴식터들과 장자강기슭을 따라 종비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나무들과 수천그루의 꽃관목을 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특파기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입니다.》 김정은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내미는것이 중요하다

자강도당위원회 사업에서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과 각별한 정을 맺은 자강도, 견결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인 강계정신이 창조된 력사의 땅에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내미는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자강도는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하였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건설, 최첨단돌파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도당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사업을 생명선으로,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끌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 거둔 자랑스러운 열매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지시를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정립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침투시켜 그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확히 꿰들고 뼈에 새기도록 하는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정형을 건별로 따져보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 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주, 월별로 총화하면서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도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중심고리를 똑바로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집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

자강도에는 흥주탁공장, 강계오리공장, 강계돼지공장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그쯘히 꾸려져있다. 자강도안의 로동계급과 강계시민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이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축산물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종자와 함께 먹이보장문제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현대적인 자강첨가제공장 건설과정이 그에 대한 실례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일떠서는 자강첨가제공장건설을 위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강력한 력량으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건설장에 자주 나가 건설정형을 알아보고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는 한편 도안의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제작을 다그쳐 제때에 보내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수십종에 110여점에 달하는 설비들이 훌륭히 제작되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설비조립공사를 끝내는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지금 훌륭하게 일떠선 공장에서는 집짐승먹이의 효과성을 높이고 집짐승의 완전영양을 보장할수 있는 10여가지의 첨가제가 생산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축산물생산에 필요한 먹이를 보장하게 되여있는 시, 군들에서 계획된 먹이를 제때에 전량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대용먹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종자와 함께 먹이보장문제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는 과정에 집짐승사양관리와 수의방역사업을 비롯한 축산물생산의 다른 고리들도 보다 원만히 풀려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도안의 로동계급과 강계시민들에게 매달 고기와 알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선군13경의 하나로 자랑높은 장자강의 불야경, 고난의 천리를 웃으며 돌파해온 우리 인민의 신념과 랑만을 눈물겹게 전하여주는 추억의 불야경이 오늘도 빛나고있는것도 도당위원회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에서 중심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장자강의 불빛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더 밝은 빛을 뿌리도록 하는것을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강성번영의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여기에서 도당위원회가 틀어쥔 중심고리는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강도에는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건설한 백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이 있다. 그런데 장마철피해와 설비부족으로 여러 발전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어 제때에 대책을 세우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력량을 집중하여 장마철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지휘하면서 설비들을 빠른 기간안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갔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도록 하는 한편 흥주3호발전소, 초산청년3호발전소와 중상발전소를 비롯한 여러개의 발전소를 올해중으로 완공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발전소건설장들에 내려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단계별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지방자재들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일정대로 공사가 진척되도록 조직과 지도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도당위원회가 전기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완강하게 내민 결과 장자강의 불야경은 오늘 인민의 만복이 활짝 꽃펴날 선군조선의 미래를 펼쳐주며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불밝은 살림집창가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는것도 도당위원회가 중소형발전소들에서의 전기생산을 중심고리로 확고히 틀어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강하게 내밀 때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자강도당위원회의 사업이 잘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일관성과 오분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3년전이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 전인철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깊이 파고들었다. 힘있는 기업소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단위답게 해놓은 일은 많았다.

그러나 부족점도 있었다. 압축기의 질을 높이며 기종을 늘일데 대한 유훈, 첨단지열설비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유훈관철실태가 대표적실례였다. 이미전에 십여종의 압축기시제품을 만든것으로 만족하는가 하면 설계조건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열설비생산기지건설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못하고있는 상태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분열도식일본새에 있었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오분열도식일본새를 불살라버리고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걸었다. 당위원회 비서들인 전병렬, 정영길동무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은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을 발동시켜나갔다.

군중은 선생이였다. 기술자들속에서 기발하고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나왔다. 탄광, 광산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압축기의 질을 더욱 높일 제안, 수입에 의존하던 압축기를 자체로 생산하자는 발기…

당위원회는 이 하나하나의 제안들을 일군들과 기술자들과의 집체적협의를 거쳐 당결정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실현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어느 한 압축기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과정을 실례들어보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기업소에서 새로 개발한 이 압축기는 중량과 부피가 너무 커서 리용에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다. 당위원회는 중량과 부피를 줄이면서 성능은 더 좋게 개조할데 대한 분공을 룡성기계설계연구소 실장 라금철동무와 선군압축기직장의 기술자들에게 맡겨주었다.

당위원회는 설계실과 압축기제작현장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였으며 매주 총화도 지어주면서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었다. 난관앞에 맥을 놓고 주저앉을세라 걸음걸음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당조직의 믿음과 손길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분발시켰다. 이들은 보다 합리적인 개조안을 찾기 위하여 수요단위를 찾아 수천리길도 주저없이 걸었고 끝끝내 성공을 안아왔다.

제약공업분야에서 많이 요구하는 압축기의 개발제작과정 역시 그렇다. 설계과정에 부닥친 기술적난관앞에서 동요하는 설계원들에게 민족적자존심을 심어준 사람들도,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길을 중단없이 걷도록 밀어준 사람들도 바로 당일군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당사업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내민 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기적을 낳았다. 기존공식을 따르면 4년은 걸려야 한다던 930여개의 수문바퀴제작이 불과 넉달동안에 끝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생산전투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설비현대화와 지열설비생산기지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성과 오분열도는 량립될수 없는 사업태도이고 일본새이다. 수령에 대한 고결한 도덕의리심에 기초한 일관성이 유훈관철의 성과를 담보하는 열쇠라면 가식으로부터 나오는 오분열도는 그를 저애하는 금물이다. 쟁개비끓듯 할것이 아니라 용광로처럼 중단없이 거세차게 끓어번질때 큰 성과가 이룩된다.

이것을 이곳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사업이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량심의 기록-집행

정주시 오산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정주시 오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종진동무는 올해목표로 정한 거름생산계획을 집행했다는 계획부원의 말을 들으며 집행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결코 쉽게 써넣을수 없는것이 집행이라는 두 글자였던것이다.

종전에는 거름생산계획같은것은 좀 에누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집행이라는 두 글자를 쉽게 사업일지에도 적었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군 하였다.

그러던것이 완강하고도 깐진 일본새를 가진 초급당비서 한영춘동무와 함께 사업하면서부터 집행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관리위원장은 풀베기전투때의 일들을 잊을수 없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풀베기전투가 끝나면 풀을 베여들인 량이 모자라는데도 별로 큰 가책을 받지 않군 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이런 낡은 관점부터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선동원들을 발동하여 풀베기전투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풀을 많이 베여 거름생산을 늘여 지력을 높이라는것은 우리 시의 여러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선동원들이 앞장서자.

그의 불같은 호소는 선동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농장원들은 수십번씩 풀을 베여 거름더미를 쌓아가는 선동원들을 보며 혀를 찼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풀베기에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여 그해에 풀베기목표를 돌파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집행이라는 두 글자를 깨끗한 량심으로 떳떳하게 사업일지에 적어넣게 되였다.

지난해에도 초급당위원회는 선동원 한사람당 100t의 풀을 베도록 목표를 정하고 선동원들속에서 풀베기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제8작업반 1분조 선동원 리영심, 제10작업반의 선동원들인 리금별, 윤선경, 제8작업반의 선동원 로순희동무들이 백수십t의 풀을 베여들였으며 수많은 선동원들이 100t이상의 풀을 베여들였다. 선동원들의 뒤를 따라 농장원들모두가 떨쳐나섰으로써 높이 세운 풀베기목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나날에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사업기풍이 서게 되였다.

이런 투쟁기풍이 발휘되는 속에 사람들속에서 집행이란 두 글자를 무겁게 대하게 되였다.

지난 시기의 집행이란 두 글자에는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섞여있었다면 오늘날의 집행이라는 두 글자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깨끗한 량심이 그대로 비끼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종석

하나도 놓치지 말자

경성애자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전당적으로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생산현장들을 눈여겨보는 초급당비서 방두진동무의 얼굴빛은 밝지 못하였다. 1애자직장, 2애자직장의 바닥과 벽체들이 눈뿌리를 잡고 놓지 않았다.

고압기구청년직장이나 접착 및 포장직장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공장구내에 나무도 많이 심고 환경정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있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가슴을 허비였다.

물론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큰 힘을 넣고있는것만은 사실이였다. 더 높은 애자생산능력을 조성하며 CNC애자성형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들을 내세우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유훈관철에서 놓치고있는 측면이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며칠후에 열린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총화하였다. 여기에서 심각하게 론의된것이 바로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문제였다.

생산과 관련된 유훈부터 관철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경중을 가리며 일해온데 대한 가책의 빛이 일군들의 얼굴에 짙게 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는 반드시 집행해야 할것과 집행하지 못해도 되는것이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장군님의 유훈은 그 어느것이나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야 하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초급당비서의 준절한 목소리는 일군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회의에서는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단계별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이 토의되였다.

전투는 즉시 시작되였다. 2애자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 바닥포장과 벽체미장작업이 립체적으로 진행되였다. 현장들에 대형벽화와 구호들도 게시되였다. 건물들에 철판지붕을 씌우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단위의 면모를 일신하는것이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대중이 새로운 관점에서 발동되니 공장의 면모는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혁명사적교양실이 훌륭히 꾸려지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주변에는 구호판이 전개되였다. 구내길을 따라 가로등이 늘어서고 고전압설비설계연구소건물앞에는 이채로운 휴식터가 꾸려졌다.

당조직에서는 공장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빈땅들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고 해마다 나무심기를 정상화하도록 함으로써 2만 7 000여그루의 갖가지 나무들이 구내를 뒤덮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룩한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경험은 당조직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관철하는데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를 시사해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어느것이나 다 지상의 명령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는것, 이것이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이며 성과의 결정적 담보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인민들속에서

인민들에게 털끝만 한 부담도 주지 않으시려고

강덕수

고결하고 높으신 덕성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작전조성원들은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인민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 각오를 굳게 하는것이였다.

그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나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미 최고사령부 작전조성원들이 현지정찰을 하고 자리를 잡아놓은 곳이였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한가운데로 맑은 여울물이 흘러내리고 그 변두리에 집들이 하나둘 보이였다.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북방의 늦가을밤은 추웠다.

우리는 밤이 깊었으므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미 정해진 집으로 갔다.

집마당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그 집이 무슨 집인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큰집이 필요하겠는가고 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것이 제일 좋으니 밤이 깊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림시숙소를 다른데 정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안에서 전조등에 비친 초가집을 보시며 언제나 소박한 인민들속에 같이 있는것이 제일이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오직 인민들을 굳게 믿고 그들과 혈연적련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언제나 적들과 싸워이겼다, 그때 우리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면서 인민들과 함께 지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집 앞마당에 차가 멎자 나는 서둘러 집주인을 찾아들어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집주인은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집을 내주었다.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집뜨락으로 들어서시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이 작은 농촌집에 어떻게 모시랴싶어 망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하시듯 우리도 이런 집에서 나서자란 사람인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서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집주인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안되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자신께서는 불편을 느끼시면서도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없게 해주시려는 그 크나큰 보살피심, 멀고먼 밤길을 달려오신 피곤보다도 곤히 잠들었던 집주인들에게 폐를 끼치는것을 못내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어찌 한 농민만을 위한것이겠는가. 그것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들모두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심려이며 보살피심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장구한 나날을 오직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 나누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인민을 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나는 가슴뜨거워짐을 금치 못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집주변과 골짜기를 돌아보시고나서 집주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개울가에서 아침밥을 짓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였다.

한없이 겸허하시고 고결하신 인민적 풍모앞에서 우리는 그저 머리를 깊이 숙였을뿐 아무 말씀도 더 올리지 못하고 누기찬 개울가에서 아침밥을 지었다.

그날 아침 늦게야 이 모든 사실을 안 집주인은 죄송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 눈물이 글썽해서 달려왔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집주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복잡한 전쟁시기에 와서 이렇게 괴로움만 끼쳐서 미안합니다.》

《아니 장군님, 제가 그만…》

집주인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그이의 보살피심이 너무도 뜨겁고 지극하여 자꾸만 눈물을 흘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아침 끝내 그 개울가에서 늦은 아침식사를 검소하게 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시고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은 헤아릴수 없이 극진한것이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점심녘이였다. 이곳 마을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께 아무것도 대접하지 못하는것이 더없이 가슴아프고 안타까와 모여앉아서 의논한 끝에 돼지 한마리를 선물로 가져왔다.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폐도 끼치지 않으시며 사소한 불편도 없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을 잘 알고있는 우리들은 인민들의 성의를 선뜻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전체 마을농민들의 성의이니 꼭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떠맡기다싶이 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수없이 그 돼지를 받아놓게 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새 이 사실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시고 혹시 동무들이 요구하여 그 돼지를 가져온것이 아니냐고 엄하게 따져물으시였다.

나는 마을농민들이 선물로 가져온것이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색을 달리하시며 적들의 만행으로 우리 농민들의 집짐승이 많이 없어진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인민들이 보내는 돼지라고 해서 잡아먹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마을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오늘중으로 그 돼지를 돌려주라고 하시였다.

그날 나는 그 돼지를 인민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그날그때까지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 일해오느라고 하였지만 사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처럼 그렇듯 뜨겁고 열렬하게 인민을 생각하며 사랑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비단 나만이 느끼는 가책이 아니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전쟁의 준엄한 길을 함께 걸은 우리 친위전사들모두의 뉘우침이였다.

바로 그무렵에 최고사령부의 친위중대에서 있었던 소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자책감을 더욱 크게 하였다.

3면으로 계속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경쟁력있는 제품이 자기 단위의 얼굴이다

대동강전기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년간 대동강전기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변압기들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반밀폐식, 밀폐식변압기들은 그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전기적특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특수용도의 변압기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고 수요에 따라 계렬생산하고있는데 값이 눅으면서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이런 경쟁력있는 제품개발로 하여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 국내의 변압기생산분야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인민경제적수요가 높은 새 제품들을 련이어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이 공장 일군들이 좌우명으로 삼는것이 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당의 높은 뜻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접수하고 관철할 때 새 제품개발사업의 성패도 결정된다는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하시자동절체기를 성과적으로 개발하고 그 계렬생산공정을 꾸려놓던 과정은 그에 대한 좋은 실례로 된다.

몇년전 국내의 변압기수요에 대하여 료해하던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어느 한 제품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적지 않은 단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그 자동절체기로 말하면 고압전력계통에서 입구전압변화에 관계없이 출구전압을 자동적으로 유지하는 현대적기술이 도입된 변압기였다.

해당 단위들에 나가 그 설비의 기술상태와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일군들은 그때까지 공장에서 소규모적으로 생산하던 수동식절체기에 비하여 우월한 제품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세계적추세에 따라선다고 하면서 량적수요가 많은 일반전력용변압기들을 반밀폐식, 밀폐식으로 개발하는데만 치중하여온 자신들의 사업에 빈구석이 있었던것이다. 전반적인 제품들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지 않는다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의 한쪽기슭으로 밀려날수 있다는 일종의 경종이였다. 심각한 자책이 뒤따를수록 우리라고 왜 그런 설비를 만들지 못하겠는가 하는 민족적자존심이 심장의 피를 끓게 하였다.

현대적기술이 도입된 새 변압기를 우리자체로 개발하자, 이런 확고한 결심을 다진 책임일군들은 지체없이 공장의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강력한 개발력량을 꾸리였다. 해당 부문과의 련계밀에 일군들이 뛰여다니며 그 분야에서 이룩된 최신연구성과자료들도 구입하였고 공장자금을 내여 사온 자동절체기도 그들에게 시험개발용으로 안겨주었다.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과 이신작칙은 첨단의 초행길에 나선 개발조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김인석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자동절체기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해당 부분품들과 장치들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파악하며 기초설계를 완성하였다.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이라도 철저히 우리의것으로 소화하는것, 언제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새 제품개발사업을 추동하여온 이곳 일군들은 자동절체기제작단계에서도 이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개발조성원들을 이끌어나갔다.

기초설계에 의하면 자동절체기의 기본부분인 하부본체와 밑판은 일체식으로 제작하여야 하였다. 그러자면 진공함침기를 비롯한 전용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공장에는 당장 그런 설비가 없었다. 기술자, 기능공들속에 깊이 들어간 일군들은 공장의 현존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제작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나갔다.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공장실정에 맞게 하부본체와 밑판을 따로 제작한 다음 서로 고정하여도 능히 성능을 보장할수 있다는 창발적의견이 나왔다. 얼마후에는 승명길동무가 하부본체를 높은 기술적요구를 보장하며 감을수 있는 설비제작설계를 내놓았다.

일군들은 이것을 계기로 기술력량을 불러일으켜 기초설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장실정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부분품들을 개발완성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였다.

온 공장에 현대적기술을 자기의것으로 소화하고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불꽃튀는 창조의 낮과 밤이 흘렀다. 그 나날 접점수감요소도 빛결합소자가 아니라 계전기식으로 개조하는 방안, 전압안정범위를 2배이상으로 늘일수 있도록 기계요소를 제작하는 방안 등 수많은 기술개조안들이 집체적토의밑에 설계로 완성되였다. 조종단제작을 맡은 실장 차억준동무를 비롯한 정보실의 기술자들은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PLC장치설계를 완성하고 제작한데 이어 해당 프로그람들을 성과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자기 땅에 철저히 발을 붙이고 모두가 분발한 가운데 시제품개발을 위한 만단의 기술준비가 갖추어졌다.

공장일군들은 이 성과에 토대하여 본격적인 제작단계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계렬생산을 위한 80여종의 지구장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통이 크게 전개하였다. 즉시적인 계렬생산에로 넘어갈수 없는 시제품개발성과는 의의가 없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현행생산지휘가 드바쁜 속에서도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우선적으로 밀어주었으며 때로는 중요한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일군들이 직접 수백리의 먼길을 주저없이 달려갔다.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여 일판을 전개해나간 일군들의 근기있는 작전과 지휘는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지난해초 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있는 제품인 부하시자동절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이들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련이어 계렬생산에 들어가 중앙동물원개건공사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보내주었다.

이 공장 일군들의 사업은 당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책임일군들부터가 자기 단위를 대표하는 독점지표, 경쟁력있는 제품을 하나라도 더 내놓겠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현대적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일판을 전개해나갈 때 인민경제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도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병 춘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

◇ 격동의 불을 안은 시대가 천리마의 기상안고 들끓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당이 그어준 새로운 진격의 화살표따라 과감히 전진하는 조국의 벅찬 숨결이 어디서나 들려온다.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조선의 결심을 온 세상에 다시금 보여주게 될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 서보아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 등 거창한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격전장들에 서보아도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들을 단숨에 점령하려는 애국의 발걸음소리가 귀전을 세차게 울린다. 전국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이 용암마냥 끓고있다.

◇ 속도는 최대로, 질은 최상의 수준에서!

바로 여기에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돌진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의 상상봉에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눈부신 모습과 기상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선군조선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질제고에 대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속도는 단순히 시간적의미로만 설명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속에는 더 빨리라는 큼직큼직한 보폭과 함께 더 높이라는 질적비약이 있다.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하여 우리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창조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건설물이기 전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의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들이다.

지난 3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짧은 기간에 만든 국산화된 경비행기에 몸소 오르시여 리착륙시험비행을 진행하시면서 그들이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보장,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고 우리 인민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이다. 우리 식의 생산물과 건설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고 일떠세우는 길에서는 순간의 답보나 만족이 있을수 없다. 오직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만이 있어야 한다.

◇ 과학과 기술에 질제고의 근본열쇠가 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은 현대적과학기술과 첨단기술수단들에 의하여 담보된다. 낡고 뒤떨어진 설비와 기술을 가지고서는 제품의 질적요구를 보장할수 없으며 세계적수준의 우리의것을 창조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고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질경쟁을 활발히 벌려 2월 2일제품, 12월15일품질메달,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 기업소대렬을 늘여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 시공, 건재를 잘 결합시키고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모든 공정에서 최신설계기술, 앞선 공법과 기술, 선진재료 등 첨단건설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나감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모두다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의 한마음안고 우리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생산물과 건설물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량심과 실천으로 보증하며

희천9호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장마다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가 새겨져있는데 이 구호가 단순한 선동구호가 아니라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을 받들고 조국을 사랑하는 충정과 애국의 구호가 되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깨끗한 량심과 실천의 구호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희천9호발전소건설을 완공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평양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공사마다에서 한결같이 내세우고있는 철칙이 있다.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할 발전소처럼, 우리가 쓰고살 건물들처럼!

이것은 결코 선동구호나 말치레가 아니다. 수문설치와 언제전구간에서 권양기중기의 운행과정을 놓고보자.

수문공사에 진입하면서 이곳 려단지휘관들은 부분품별로 들어올려 조립설치하던 종전의 안전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발전소건설의 오늘뿐만아니라 그 운영의 먼 래일까지도 내다본 이들은 대담하게 수문들을 지상확대식으로 조립하고 통째로 들어올려 운반설치할 통이 큰 방안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육중한 권양기중기에 수문무게가 합쳐져 레루와 다리보에 최대의 짐이 실리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언제의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소한 이상요소가 나타날세라 실속있는 대책을 빈틈없이 세움으로써 앞으로 발전소가 조업한 후 수문권양기중기운영의 그 어떤 경우에도 다리보의 안전성을 보다 확고히 담보할수 있었다.

실천과정은 비록 어려웠어도 건설자의 참된 량심을 지키는 길이였다.

현장지휘부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려단에서는 부족되던 권양능력문제를 짧은 시일안에 원만히 해결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과 기공구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레루의 전반적인 수평보장과 다리보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언제 전구간에서 권양기중기가 수문을 든 상태로 왕복주행을 여러차례 하도록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제때에 완벽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언제의 안전성을 보다 확고히 담보하고 수문설치작업의 질과 속도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자기들이 일떠세우는 발전소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려는 이들의 깨끗한 량심과 꾸준한 실천은 완공단계에 이르러서도 한치의 변함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실현될수 있습니다.》

관리국당조직에서는 생산자들이 한벌한벌의 교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마음과의 사업부터 참신하게 벌리였다.

관리국참모부에서는 교복생산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갖추고 여러차례 기술협의회와 앞선 단위의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제고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교복생산에서 만경대옷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제품의 질제고에서 앞장섰다.

형제산피복공장의 일군들이 생산자들속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곳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세부공정별목표를 정확히 주고 기능공들의 배치와 공정간련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철저히 합격품만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교복생산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사동피복공장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충정의 불을 지피였고 모두가 교복 한벌한벌에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 나왔고 생산에 도입되여 질제고에서 큰 은을 냈다. 송금순동무를 비롯한 1작업반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교복주머니입선길이를 질적으로 보장하였다.

리혜영동무를 비롯한 공정검사원들도 깃달기공정, 소매달기공정, 주머니달기공정 등 모든 공정들에서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질검사총화를 엄격히 하여 자그마한 빈틈도 없이 하였다.

온 나라 학생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교복을 훌륭히 생산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들이 요구하는 질좋은 지은옷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인민이 좋아하는 제품을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2면에서 계속

어려운 후퇴가 계속되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하시고 친솔하시던 친위중대의 어린 대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송아지 한마리를 사왔다. 소를 잡아서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도 보장하고 행군으로 하여 피로한 중대동무들을 한끼 푸짐히 해먹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를 나무밑에 세워놓고 당장 잡을 차비를 서둘러댔다.

바로 이때였다. 부대가 주둔한 마을을 돌아보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곳으로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 친위대원들이 서두는 심상치 않은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된 소인가고 물으시였다.

한 나어린 대원이 마을에 나가 사온 소인데 잡으려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포동포동 살이 찐 송아지의 등판을 쓸어보시면서《잡아먹자고?…》라고 혼자말씀처럼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소옆에서 얼마간 물러서시더니 옆에 서있는 어린 대원들을 바라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대원에게 물으시였다.

《이 소가 이제 얼마나 있으면 발갈이를 할수 있겠소?》

《1~2년후면 능히 발갈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린 대원이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소를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되오. 곧 소임자에게 돌려주시오.》라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소를 끌고왔던 어린 대원과 방금 소를 잡으려고 서둘던 동무들은 그 순간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깊이 수그렸다.

어린 친위중대원들이 몹시 당황해하며 자책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것을 보시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시듯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동무들은 오늘 인민앞에 큰 죄를 지을번 했다. 인민군대가 아무리 어려운들 어떻게 인민의 소를 잡아먹겠는가. 동무들도 말했지만 이 송아지는 이제 1~2년후면 발갈이를 할수 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전쟁때문에 소가 많이 없어졌다. 미국놈들이 들어와 때려잡아먹고 또 놈들의 폭격에 많이 죽었다.

그런데 동무들까지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은 계속된다. 전쟁이 몇년이고 더 계속된다 해도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한다.

이 겨울이 가고 얼음이 풀리면 다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런데 소가 없이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

소는 농민들의 귀중한 재산이다.

우리는 인민군대인것만큼 농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털끝만큼이라도 다치지 말고 아끼고 보호하여야 한다. 설사 끼니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민군대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전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굶어죽으면 죽었지 인민의 재산에 해를 주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다는 약수동마을인민들의 소이야기를 상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극력 보살펴주신 그 높고 고결하신 인민적풍모에 가슴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었다.

이리하여 친위중대원들이 사온 소는 소임자에게 다시 돌려졌는데 그때 소임자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에 감격하여 눈물을 머금었었다.

이것이 바로 친위중대에서 있었던 소사건이였다.

그후 우리는 회의를 열고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며 그것을 함부로 침해하려는 그릇된 견해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에 털끝만 한 손해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집행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그후 우리는 전쟁의 전기간에 어버이수령님의 그 귀중하신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한건의 군중규률위반도 없이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리익을 자기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맡은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인민을 위하시고 따뜻한 혈육의 정으로 그들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하신 인민적풍모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구감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1978년 11월

비약의 문을 열어제낀 열쇠—주인다운 자각

수양산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최근년간 수양산은하피복공장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 비약적발전을 이룩하였다. 덩지큰 생산건물과 보조건물들이 새로 일떠서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콤퓨터화가 실현되였으며 제품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이 눈에 띄게 개선되였다.

우리는 그 성과의 비결을 대중운동을 방법론적에 벌려온 공장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주인된 자각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는것을 공장의 비약적발전의 근본열쇠로 틀어쥐였다.

매개 단위의 발전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대중의 주인된 자각을 높이는 문제를 가장 중시한것은 그것이 모든 요인들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이기때문이였다. 그러면 이곳 당조직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가를 보자.

당조직에서는 두가지 문제를 중시하였다.

하나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사상정신력의 강자로, 다른 하나는 실력의 강자로 키우는것이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대중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혁명실천의 용광로속에서만이 정신력의 강자를 키울수 있기때문이였다.

몇해전 대중운동결의목표에 이미 있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덩지큰 생산건물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문제를 반영하자는 지배인의 대담한 제의를 놓고 토의할 때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대부분의 종업원이 녀성들인 조건에서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그것을 실현한다는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격이라는것이였다. 그때 지배인 리제석동무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나서며 초급당비서 김찬동무는 일군들에게 호소하였다.

《단숨에의 정신으로 폭풍처 비약하는 조국의 벅찬 숨결에 발걸음을 맞춥시다.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우리 힘으로 기적을 창조합시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정신력의 강자가 되여 공장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일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군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이 내용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되게 되였다.

그 실현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녀성들의 힘으로 건평이 수천㎡에 달하는 5층짜리 생산건물을 건설한다는것은 실로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현행생산과 건설을 동시에 내밀기 위해 공장에서는 리종득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60여명의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을 주력으로 공사를 내밀면서 하루일을 마친 종업원들이 야간지원활동을 드세게 벌리도록 하였다.

지배인과 초급당비서는 기초파기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채를 메고 내달렸다. 일군들의 기수적역할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날이 갈수록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종업원들속에서는 지친 기색들이 엿보였다. 그럴수록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후방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독보와 해설사업이 격식없이 진행되고 직관선동, 경제선동을 비롯한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떨쳐나서 돌격대원들을 지원해나섰다.

그에 고무된 돌격대원들과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연약하다고 보았던 녀성종업원들이 남성들과 경쟁을 벌리며 이악하게 일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낸 사실을 다 말할수는 없다. 그들은 기초파기와 벽체쌓기, 층막치기 등 공정에 따르는 공사일정들을 앞당겨 짧은 기간에 생산건물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기세를 늦추지 않고 보조건물들을 련속 건설하여 공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상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실력전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그들을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것을 대중운동결의목표에 반영하고 그 사업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실력전의 강자로 키우는 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갔다.

그때까지 공장에는 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멀리에 있는 일로 신비하게 여긴것은 우연치 않다.

사람들의 이런 판점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지배인이였다. 콤퓨터분야는 그에게 있어서 생소하였지만 밤을 새워가며 콤퓨터지식을 파고들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기사장 곽순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거울로 되였다. 그때부터 공장에는 실력전의 불바람이 휘몰아쳤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적극 망라시켰으며 기술자, 기능공들을 대담하게 믿고 어려운 기술과제를 맡겨주어 일터에 과학기술열풍, 창조의 열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그 생활력은 자못 컸다. 평범한 종업원들이 한다하는 인재로 두각을 나타냈다. 차선일동무는 콤퓨터분야에서 막힘없는 기술자로 자랐으며 류명철동무는 설비분야에서, 김혜영동무는 피복연구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한명의 인재가 그토록 귀하던 공장에 인재의 대부대가 자라났다. 김산선, 김신향, 임철옥, 김금주동무를 비롯한 많은 녀성종업원들이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인재로 자라나게 된것은 참으로 큰 성과였다.

그들에 의거하여 공장은 설비의 현대화와 후방기지축성, 꾸리기 등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비약의 지름길을 힘차게 내달릴수 있었다.

오늘 공장이 2중3대혁명붉은기,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한 전투력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는 비결은 명백하다.

그렇다.

이 공장 당조직의 경험은 대중을 단위의 진정한 주인으로 키우는 사업을 근본열쇠로 틀어쥔다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비약의 대문을 열어제낄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공동구호에서

우리 당의 혁명방식, 투쟁기풍, 창조본때로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자!

☆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공사장에서 ☆

번영의 대문이 열리는 곳에 우리가 있다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중앙동물원개건공사장에서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가는 혁신자들속에는 조선인민군 김동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답게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부대는 높이가 20m나 되는 맹금사의 원형관망대와 명금사의 인공못을 비롯한 작업량이 많고 시공도 어려운 여러 건설대상들을 맡고있다. 이 건설구획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동물사들만이 배치되여있었다. 그러한 곳에 사나운 새들이 날아예는 대조롱을 형성할 기둥기초들이 틀지게 들어앉고 수십m높이의 원형관망대골조와 드넓은 인공못이 보란듯이 생겨났다.

맹금사의 라선형계단을 갖춘 원형관망대는 풍부한 건설경험과 능률적인 건설장비를 가지고서도 기일이 적지 않게 걸려야 했던 건설대상이다. 그렇듯 어렵다던 관망대골조공사는 어떻게 추진된것인가.

정상순소속부대아래 리상일소속구분대에 원형관망대골조공사를 진행할데 대한 과제가 맡겨졌을 때였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도 기능공로력과 능률적인 건설기계 그리고 수백대의 강관발대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빠른 기간에 해결될수 있다는 담보가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공사를 앞두고 구분대지휘관이 대오앞에 나섰다.

《우선 목표를 높이 세우고 무조건 수행한다는 원칙에서 타산합시다.》

실태를 잘 알고있는 구분대장이 이런 의견을 내놓았을 때 모두가 의혹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단기간에 공사를 추진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돌격정신, 돌격속도의 창조자가 되는것이였기에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한모습이 되여 의견을 합치였다.

고공작업에 필요한 형강확보와 함께 휘틀제작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격전이 시작되였다.

용접을 맡은 군인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도 아랑곳없이 혁신의 불꽃을 쉬임없이 날리고 휘틀조립과 콩크리트치기를 맡은 전투원들은 수리개마냥 아득한 발판을 타고 위훈창조의 새날을 맞고보내였다. 사회주의경쟁도표의 붉은 줄이 불줄기마냥 쭉쭉 뻗어올랐다.

온 현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질 때 오명혁, 김동철동무를 비롯한 군관, 초기복무사관들은 자동차기중기를 대신하는 지구를 만들어 리용하자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타당성이 있어보였다.

그후 형강틀과 혼합물을 끌어올릴수 있는 지구가 원형탐중심에 설치된데 이어 휘틀과 형강조립작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그 나날 몰탈묻은 손으로 전투일력을 번지던 지휘관들과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필요한 물동을 끌어올리며 말은 공정을 어김없이 수행한 미더운 군인건설자들…

수백대의 강관발대와 능률적인 건설기계를 리용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량의 물동을 지체없이 끌어올린 결사관철투사들에 의해 원형관망대는 억척의 기둥처럼 자랑스럽게 솟아올랐다.

길지 않은 그 나날 부채살모양의 관망대지붕채양구조를 형성할 때에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 모습이 펼쳐졌던가.

소대장 윤철혁동무를 비롯한 전투원들이 눈뿌리 아득한 만장에서 수십장의 휘틀조립을 도맡아해제껴 공사를 중단없이 추진할수 있는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공사과정에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애국적자각을 가지고 창조의 기수로 자랑떨친 군인들이어찌 그들뿐이랴.

수천㎡에 달하는 명금사의 인공못형성과정에 6천여㎥의 혼석다짐과 수십m길이의 정각다리를 품들여 건설하고 현장주변에서 수백㎥의 막돌을 확보하여 인공바위를 손색없이 형성해놓아 중앙동물원의 상부지구를 몰라보게 변모시킨 한경국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세월을 앞당기며 폭풍쳐 내달리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들인 부대장병들은 지금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이렇게 웨치고있다.

번영의 대문이 열리는 곳에 우리가 있다.

조국이여 우리를 믿으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 원 철

묘술을 찾는 현장기술협의회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에 참가한 모란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는 크지 않은 시공단위이다.

로력자도 적고 가지고있는 건설장비도 남다르지 않다. 그렇듯 규모는 크지 않아도 사업소는 공사과제수행과 질보장에서 언제나 우수한 단위로 손꼽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창발적의견을 많이 듣고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운영준비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건설현장에서 진지하게 협의하여 제때에 옳바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 단위들과 자연박물관건설공사에 참가한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모든 공정에 앞서 어김없이 진행되는 현장기술협의회이다. 사업소아래 직장일군들과 시공기술자들, 간혹 작업반장들도 참가하는 협의회과정에 모든 공정순차가 최량적으로 정해지고 즉시에 실천으로 이어지고있다.

규모가 큰 자연박물관 기초콩크리트치기가 진행될 때였다.

공사는 시작부터 시공단위 전투원들의 말없는 경쟁으로 되였다. 모두가 탕개를 바싹 조이고 떨쳐나섰던것이다.

이런 경우 공사의 앞장에서 내달린다는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였다. 기초구간은 온통 철근조립과 강관발대조립전투로 끓어번졌다.

사업소가 맡은 구간에서도 불이 달렸다. 그런데 이곳 건설자들은 린접한 단위들과 대조되게 강관발대는 세우지 않고 초반다짐과 준비층콩크리트치기를 다그쳤다. 리유가 있었다.

공사를 앞두고 일군들이 진지한 협의과정에 공정수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냈던것이다.

일군들이 최량의 공정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론의를 거듭한것은 하루전의 일이였다.

그때 이곳 일군들이 예측한것은 기초공사과정에 강관발대를 세우는 문제였다. 발대를 먼저 조립해놓으면 기초벽을 형성한 후 그 주변의 흙메우기작업을 위해 부득불 발대를 다시 해체하였다가 조립해야 하였다. 이것은 공사과정에 반드시 반복공정을 거쳐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와는 달리 발대가 없이도 기초벽콩크리트치기를 할수 있는 높이까지 휘틀과 철근길이를 정하면 콩크리트치기도 헐할뿐아니라 흙메우기작업까지 한 다음 발대를 세우게 되므로 다시 해체조립하지 않아도 되였다.

결론은 명백했다. 사업소적으로 발대를 세우기 전에 지반다짐과 콩크리트치기속도를 부쩍 높이기로 하였다. 목표가 뚜렷하고 공정도 명백하니 모두가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쳤다.

그후 사업소가 맡은 구간에서는 기초벽주변의 흙메우기작업까지 결속된 다음에야 강관발대조립전투가 시작되였다.

공정수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하니 기초공사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얻어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사실적은 2배로 높아졌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실적을 높여가는 사업소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격식없이 벌어지는 협의회과정을 놓고도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휘틀조립은 많은 품과 시간이 드는 공정이다. 기사장 김광홉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모든 휘틀작업때마다 설계도면을 깊이 파악하고 그 조립과 해체를 신속히 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다음 직장들에서 실속있게 도입하도록 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본수로공사의 나날 합리적인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단위로 평가받은 밑바탕에도 이곳 일군들이 현장협의회를 통해 찾아쥐군 하는 묘술이 깨려있다.

주먹치기로는 오늘의 격동하는 현실에 박동을 맞출수 없다. 이것이 걸음마다 공사성과를 확대하는 사업소일군들의 일본새에서 찾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다.

본사기자

공격전의 불길속에 흐르는 전선시간

단숨에 끝난 집중수송전투

자연박물관기초콩크리트치기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때였다. 시공단위 전투원들의 기세는 대단했다.

온 현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던 그때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급선무였다.

어느날 철도역에 수백t의 세멘트를 실은 화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것은 저녁 9시경이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철도역앞에는 유압식굴착기와 삽차, 10여대의 중량급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늘어서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멘트도착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중앙지휘부와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중기계사업소, 시공단위 일군들은 즉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 긴급수송전투를 조직지휘하였다.

보통때라면 방대한 량의 세멘트를 부리우고 운반하는데 여러날 걸려야 할 아름찬 일감이였다. 하지만 위력한 기계화전이 안받침된 집중수송전이 벌어진 결과 이날의 운반작업은 불과 5시간만에 결속되였다.

전격전으로 극복한 감탕층

승리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는 어려운 수족관건축공사를 맡고있다. 지난 3월까지만도 이미 굴착한 수족관의 기초구간에는 감탕층이 깔려있었다.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면 적지 않은 기일이 남아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기계수단을 리용할수 있는 담보도 없었다.

하지만 불리한 공사조건은 단며칠사이에 극복되였다. 심지어 기초바닥에서는 준비층콩크리트치기까지 활기있게 진행되였다. 성과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때 얼음으로 뒤덮인 감탕층구간에 주저없이 들어선것은 왕영훈동무를 비롯한 사업소 1직장 일군들과 전투원들이였다.

직장의 전투원들은 함마와 정대를 들고 온몸에 얼음버캐를 하얗게 들쓰면서 대중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이들의 결사적인 노력속에 한주일만에 400여㎡의 면적에 대한 정리작업이 일매지게 결속되였다.

목표는 높이, 실천은 번개같이

자연박물관물조공사에 참가한 10여개 단위중에서 송화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가 계획보다 3일이나 앞당겨 기초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남먼저 끝냈다.

비결은 무엇인가. 통이 큰 목표, 과감한 실천이였다.

이곳 일군들은 지난 시기 중요건설대상을 맡아 수행한 경험을 살려 강관발대와 세부자재를 빈틈없이 확보할 면밀한 대책안을 세웠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목표수행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력량배치도 잘되였다. 1, 2, 3직장은 휘틀조립과 콩크리트치기에, 4직장은 철근가공과 조립, 5직장은 혼합물생산과 운반공정에 배치되였다. 공사과정에 시공 및 질감독원들의 역할도 높이도록 하였다. 결과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려 기초공사를 남먼저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했던것이다.

본사기자

공정준비도 공사실적이다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시작이 절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설기업소들에서는 건설작업을 조직화, 계획화하고 로력조직과 시공조직을 짜고들며 물자와 자금의 사장량 비현상을 없애고 설비, 자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건설을 정상화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만났던 기사장 김성철동무는 주변단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소에서 자체로 확보하여 공사에 리용하는 콩크리트치기용세부자재량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결코 공사성과를 담보하는 전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그 준비가 잘되면 의례히 높은 속도와 질이 담보되기마련이다.

사업소는 물론이고 매 직장일군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공정수행에 앞서 공사준비를 면밀히 하는것을 놓칠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다.

윤종원동무를 비롯한 8직장 일군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직장에서는 하루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다음날 공사준비를 어김없이 갖추고 현장을 뜨는 질서가 확립되여있다.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다음교대나 다음날공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원만히 갖추었을 때에는 공사의 속도와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군 하였다.

이 단위라고 로력자수나 설비리용대수, 기공구량이 남달리 많은것이 아니다.

아무리 하루공사과제수행량이 많고 시간이 긴박하다고 해도 다음교대, 다음날공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여기에 8직장이 우수한 단위로 되고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사업소에서는 지금도 모든 공사수행에 앞서 공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사업이 기본공사처럼 중시되고있다.

자연박물관골조공사가 한창이던 나날 사업소앞에 새로운 건물기초공사를 시작할데 대한 과제가 맡겨졌을 때였다.

이 경우 두개 건설대상을 동시에 추진할 로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한 대상을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고 다음대상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이 보편적이라고 할수 있었다. 하지만 시공과장 김경묵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일군들은 현재 추진되는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엄밀히 따져보니 기초공사가 마감될수록 기둥만 남고 벽체구간은 공사초기보다 줄어들고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된 로력은 공사시작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여기서 새 건설대상에 배치할 로력예비가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예비는 로력자수만이 아니였다. 건설자들이 리용하는 기공구와 지구를 비롯한 건설장비도 효과적인 예비가 아닐수 없었다.

그후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혼합물생산로력은 새 건설대상의 준비작업공정에 지체없이 돌려졌다. 두개 대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던 문제는 이렇게 풀리였다.

빈틈없는 공정수행준비, 거창한 창조적건설성과의 담보가 여기에 있다는것이 이곳 일군들이 내세우는 중요한 책략의 하나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 경 철

위훈창조의 앞장에 선 혁신자들

군관 공철홍

사관 리명광

직장장 김경진

자재일군 리주혁

작업반장 려창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가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는 7일 의례방문하여온 즈. 바므바야르 대외관계담당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칭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우리 나라는 북부와 중부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한두차례 받을것으로 예견된다.

5월 중순 평균기온은 량강도, 함경북도에서 12.7~12.9℃, 그밖의 지방에서 16~17.5℃로서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0.7~1.4℃정도 높으며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난해보다 0.4~0.9℃정도 낮다.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18~36mm로서 평년정도이며 평양시, 황해남도, 자강도, 량강도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5~22mm 많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에서 5~32mm 적으며 황해북도에서 지난해정도이다. 특히 5월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방들에서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급격히 높아져 가물현상이 심해지는 대신 지난해 5월 상순에 있은것과 같은 한파현상은 없을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벼모를 튼튼히 키우며 품종과 모종류별 특성, 물대기조건에 맞게 모내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7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로씨야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쏘련예술영화《고요한 저녁노을》(제1, 2부)을 감상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 시작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경기가 시작되였다.

12개의 남자축구림들과 11개의 녀자축구림들이 참가하고있는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은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련마하여온 높은 육체, 기술, 전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올해 국내 1급 남녀축구림들의 첫 경기로 지난 4월에 진행된 1차경기에서는 리명수림(남자)과 소백수림(녀자)이 각각 우승하였다.

2일부터 시작된 2차경기에서 각 림들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림의 방어진을 허물어버리며 득점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대인 및 집중방어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등 좋은 경기장면들을 보여주고있다.

경기는 두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매 조에서 점수가 높은 두개 팀이 올라와 대각경기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긴 두개 팀이 결승경기를 하며 나머지 두개 팀은 3등과 4등을 가르게 된다.

이외 팀들은 직선경기를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경기가, 5월1일경기장에서는 녀자경기가 22일까지 각각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해외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제17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하였던 강경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 박기범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이 7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리혁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송하였다.

5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농사대책

모내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내기는 벼모의 생육상태와 기상조건, 품종적특성, 물조건 등을 고려하여 평균기온이 13~15℃ 되면 시작할수 있다. 모종류별로 씨뿌림량을 고려하여 적기에 모를 내야 한다. 올해 영양단지모로 소식재배하는 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모내기를 일찍 시작하는것이 좋다.

물을 대지 못하는 단위들에서는 토양습도가 보장되는 시기에 모내기를 하여 모살이률을 높이고 튼튼히 키우며 품종과 모종류별 특성, 물대기조건에 맞게 모내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벼모판관리를 잘하여 모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온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벼모가 헛자라지 않도록 모판온도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박막을 완전히 벗기는 조건에서 모판이 인차 마를수 있으므로 물주기를 자주 진행하여 모판물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영양단지모나 영양알모, 속성모의 잎색이 떨어지면 질소비료를 평당 50g 정도(류안환산) 주며 큰모는 5.5~6잎시기에 평당 뇨소 100g을 주어야 한다.

가물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논토양의 습도를 고려하여 마른논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포기당 대수는 이른큰모인 경우 1대, 다른 모종류인 경우 2~3대정도로 보장하며 지력이 낮은 논, 랭습논들에서는 실정에 맞게 이보다 포기당 대수를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영양단지모를 비롯하여 평당 60포기이하로 소식재배하는 경우에는 평당 포기수에 맞게 두줄모아심거나 4포기모아심기를 하여야 한다.

비료공급량에 맞게 벼생육단계별비료주기계획을 바로세우고 전반기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또한 모종류와 물조건에 맞게 본답살초제처리를 잘하여 김을 철저히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벼물코끼리벌레와 벼잎파리 등 해충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영양단지모옮겨심기와 직파를 다그쳐 끝내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가물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영양단지모를 옮겨심을 때에는 물을 주면서 심어야 한다. 직파는 4~5㎝정도의 깊이로 하며 이랑우의 마른 흙을 긁어내리고 젖은 흙에 씨앗이 묻히도록 하여야 한다. 밑비료주기를 잘하며 품종과 질소시비량, 지력조건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강냉이가 3~4잎 되는 포전들에서의 애벌김매기와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직파한 포전에 비가 내려 땅껍데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아주어 싹나오기를 촉진시켜야 하며 보식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이란대사관성원들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이란친선주간에 즈음하여 만쑤르 차보쉬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7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랍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여 세계 수많은 나라 당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에 즈음한 친선모임 진행

【평양 5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에 즈음한 친선모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와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의 공동주최로 7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친선모임에는 강수린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적십자회 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모임에서는 적십자회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서와 우리 나라 적십자회의 연혁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적십자국제위원회의 활동정형이 소개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학생소년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고 적십자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한편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에 즈음하여 적십자회 지부들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세계적수준의 《은하수》 화장품을 내놓을 불같은 열정

평양화장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날이 갈수록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앞장서겠다는 자신심에 넘쳐 분발해나서고있다.

올해에만도 수천명이나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맹렬한 학습열풍을 일으키고있다는 벅찬 소식을 어느 한 기회에 교육위원회 일군으로부터 전해들은 우리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을 찾았을 때였다.

마침 이곳 교무행정일군인 과장 리철규동무가 찾아온 사연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의 이야기도 좋지만 곧장 평양화장품공장에 가보십시오. 공장에 가면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현장의 곳곳에 꾸려진 원격강의실에서 세계와 당당히 맞서나가려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야심만만한 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평양화장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찾았다.

공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모두의 얼굴마다에 지난 시기에는 느낄수 없었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될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수 있다는것이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온 공장이 최첨단돌파전에 과감히 일떠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올해를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이 되게 하려는 뚜렷한 목표와 확신을 안고 너도나도 뛰고 또 뛰고있었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은 크지 않았지만 원격강의를 받고있는 종업원들로 꽉 차있었다. 교대를 마치면 의례히 찾아오는 곳이였다.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화장품직장, 세수비누직장뿐아니라 참모부와 자재부문에도 원격강의실이 꾸려져 올해에 또다시 50여명의 종업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대학 학과들에 입학하여 마음껏 첨단기술을 체득해나가고있다.

기사장 리선희동무는 과학기술열풍에 의해 공장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전략수립에로의 확고한 방향전환을 하였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후 공장의 평범한 로동자로부터 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사상관점과 일본새, 투쟁기풍이 완전히 달라졌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연구하다가 장군님께서 품들여 꾸려주신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뜨거운 말씀을 심장마다에 신념으로 쪼아박은 이들이 아니였던가.

자그마한 화장품 하나도 그것이 우리 인민들이 사용하는것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며 세계적인 화장품공장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그날의 영광을 오늘도 이들모두는 가슴에 안고 살며 투쟁하고있다.

뜻깊은 2월의 그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충정의 전투가 벌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잊을수 없는 기념사진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그들은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달마다 1３0여종의 화장품견본들을 보내주신것이다.

태양절을 앞두고 화장품견본들을 받아안은 공장의 종업원들은 그 사랑에 목메이였다.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문명하게 할뿐아니라 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시며 거듭거듭 돌려주시는 하늘같은 그 사랑에 솟구치는 눈물을 머금고 기어이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할 신념의 맹세를 더 굳게 다지였다.

식료일용공업성 책임일군들과 기술부서일군인 김영경동무가 즉시에 공장에 내려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경공업과학분원 향료 및 화장품연구소, 생물공학분원 등 해당 부문의 실력있는 교원, 연구사들이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치였다.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공업시험소 연구사, 기술준비원들은 공장에 내려온 과학자들과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매일매일 전투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피타는 과학탐구와 실험, 과학기술자료번역을 위한 투쟁의 불을 걸고 경험과 교훈을 찾아나갔다. 피부보호 및 기능성화장품연구과제를 맡은 연구사들인 김정희, 여충일, 김광영, 권옥정, 현은경동무들은 자기들도 이 화장품공장의 현대화실현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현장을 떠날줄 모르며 일해가고있다.

남편도 연구사이기에 누구보다도 가정적부담이 큰 경공업과학분원의 연구사 김복실동무도 자기가 맡은 분장용화장품의 최첨단수준을 하루빨리 돌파하기 위해 현장에서 과학탐구에 온 심혈을 바치고있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의 열의 또한 이만저만 아니다.

화장품직장 직장장 림정향동무와 기능공들은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여러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지난 3월부터 젖빛용기를 자체로 만들어내는 기술혁신에 성공하였다.

기술과 책임부원 마철수, 공업시험소 소장 김정호, 도안공정숙영동무들이 연구완성한 접착상표도 수요자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고있다.

이미 공장에서 현지박사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직장장 김설희동무를 비롯한 세수비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짧은 기간에 세수비누생산을 부쩍 늘이면서 특색있는 4가지 세수비누형타를 새로 내놓았다.

공장당조직에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하여 맹렬히 내밀고있다.

당일군도 행정경제일군들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생산과 과학기술은 물론 군중문화예술과 대중체육활동 그리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령도업적단위답게 앞장서나가도록 하고있다.

오늘 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신심에 넘쳐 말한다.

세계적수준의 《은하수》 화장품을 내놓아 주체조국의 명예를 떨치리라.

글 본사기자 명흥숙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약초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른 비결

린산약초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경지면적을 늘이고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말 약초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단위들의 생산실적총화에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최근년간 한번도 앞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던 린산약초농장이 제일 앞선 단위로 평가되였다.

하다면 농장에서는 어떻게 생산실적을 그렇듯 비약적으로 끌어올릴수 있었는가.

농장일군들의 사업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우리는 토지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되고있는 여러 사업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토지리용률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따라 그만한 량의 부침땅을 거저 얻어내는것이나 다름없기때문이였다.

우선 농장에서는 약초밭들의 이랑과 이랑사이거리를 대체로 50㎝정도로 하여 토지리용률을 높이였다. 이것은 이랑과 이랑사이거리가 70㎝였던 지난 시기에 비해 농장경지면적의 30%정도인 백여정보의 땅을 새로 얻은것과 맞먹는다. 실로 대단한 량이 아닐수 없었다.

사실 이랑과 이랑사이의 거리는 작물재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좁게 심으면 발육에 지장을 주어 수확고가 떨어질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면 고종렬, 인영남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어떻게 되여 그런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되였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떻게 하나 약초생산을 늘이겠다는 일념으로 늘 밭에서 살다싶이 한 결과 얻어진 산물이였다.

지난 시기 약초생산에서의 제일 큰 난문제의 하나가 이랑들사이에 무성하게 돋아나는 김을 제때에 매주는것이였다. 알곡작물들과 달리 약초들은 대체로 키가 낮은것으로 하여 약초밭에서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일쑤였다. 하여 해마다 김매기에 많은 로력이 보강되였다. 그러나 김은 좀처럼 없어질줄 몰랐다.

그것으로 하여 고심하던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이랑과 이랑사이의 거리에까지 미치게 되였다. 가을할 때까지 김이 무성하게 자란다는것은 결국 약초가 다 자랄 때까지도 김이 자랄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쳤던것이다.

김이 약초에 저절로 잡히게끔 이랑사이를 설정해준다면 그 공간을 없앨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그들은 매 포전들을 돌아다니며 각종 약초들의 키와 아지의 넓이, 뿌리가 뻗는 넓이 등 약초가 자라는데 실지로 필요한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일군들은 이런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좁혀진 이랑들사이거리에 알맞게 보습도 개조하고 후치날도 만드는 등 농기계와 농기구들의 개조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농방법이라고 해도 종업원들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랑패를 볼수 있다.

실지로 사람들속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약초들사이거리가 너무 좁아져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을수도 있고 포기들의 잎이 서로 겹치여 빛합성에도 지장을 줄수 있다는것이였다. 차칫하다가는 산도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 될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몇개 포전만 시험적으로 해보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경험만을 중시하는 낡은 농사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종업원들의 의견이였지만 일군들은 무턱대고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달라붙을 때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농장적으로 새로운 영농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시기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작업반별, 분조별로도 진행되고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들과 포전들에서도 진행되였다.

농장일군들이 직접 포전들에 나가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왜 꼭 그렇게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하여 리치적으로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랑과 이랑사이거리를 새로 정하는 사업은 많은 품이 들었다. 하지만 얻은것은 그에 대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랑과 이랑사이거리, 앞뒤포기사이거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니 같은 면적에 보다 많은 약초들을 심을수 있어 좋았고 또 김매기에 드는 로력도 줄일수 있어 좋았으며 거름과 비료의 효과성도 최대로 높일수 있어 좋았다. 즉 펑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으로 소득이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지난해의 생산실적이 그 전해에 비해 1.4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토지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앞뒤그루와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약초 대 남새, 약초 대 알곡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하고있는것이다.

사실 앞그루로 약초를 심고 뒤그루로 강냉이나 남새를 심어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리라는것은 수십년전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였다.

농장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농장살림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변화되는 기후조건과 토질에 알맞는 앞뒤그루작물품종선택에 많은 힘을 넣었다.

실례로 엉겅퀴를 심고 얼마후 그 사이에 감자를 심는다. 감자는 처음 일정한 기간에는 성장속도가 뜬것으로 하여 엉겅퀴가 자라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감자를 가을한 후에는 인차 메밀이나 가을남새를 심는다. 메밀이나 가을남새를 심을 때에는 엉겅퀴가 거의다 자라나기때문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심는 감자나 메밀 등은 재배기일이 짧고 아지도 적게 치는 품종들이다.

농장에서 2모작은 물론 3모작까지 하니 같은 면적에서의 생산성은 최대로 높아졌다. 농장은 농장대로 잘사는 농장으로 전변되였고 농업근로자들의 살림살이도 보다 풍족해졌다. 이것이 그대로 종업원들의 일욕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면서 끊임없이 사색하며 모대길 때 막혔던 길도 열리고 수십년동안 내려온 낡은 관념도 깨버리며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린산약초농장 일군들의 사업은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청진제강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바뀌여진 관람석

협의회는 이윽토록 계속되고있었다.

《업무분초급당비서동무! 이번 체육의 날에 한번 경기장에 나서서 본때를 보이는것이 어떻습니까?》

초급당비서의 뜻밖의 물음에 업무분초급당비서는 대뜸 놀라며 《저까지야 뭐…》 하고 얼버무리였다. 그러면서 황황히 팔을 내저었다. 그바람에 좌중에는 웃음보가 터졌다.

예순살이 되여오는 우리같은 일군들이야 뒤에서 조직사업이나 잘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업무분초급당비서의 내심에 적지 않은 일군들이 동감을 표시하는 눈빛들이였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은채 사업수첩에 써놓은 《체육열풍》이라는 네 글자우에 연신 진한 동그라미를 덧긋는 초급당비서 김영규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체육은 젊고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관점을 일군들의 머리속에서부터 털어버려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일군들부터 체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체육의 날의 첫 경기종목을 당, 행정일군들의 건강태권도 및 대중률동체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은 날개가 돋친듯 삽시에 온 제강소에 퍼졌다.

곧 건강태권도와 대중률동체조보급사업이 진행되였다. 많은 일군들이 성수가 나서 정열적으로 참가하는 반면에 일부 일군들은 이런 구실, 저런 핑계를 대며 훈련에 빠지군 하였다.

드디여 체육의 날이 왔다.

예정대로 첫 종목은 당, 행정일군들의 건강태권도 및 대중률동체조였다. 지금껏 체육경기가 진행될 때면 의례히 관람석에 앉아 구경이나 하던 일군들이 대중앞에서 정식으로 판정을 받게 된것이다. 말하자면 관람석이 바뀐셈이였다.

종업원들은 누구라없이 자기 직장일군들을 찾아보며 술렁이였다.

일군들도 저으기 흥분된 기색들이였다.

누구보다 긴장해하는것은 훈련에 자주 빠지군 하던 일군들이였다. 음악에 맞추어 자신있게 동작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결눈질하며 진땀을 뽑는 그들의 모습은 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관람석의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마치도 천둥소리마냥 교막을 두드리는듯 몇몇 일군들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초급당위원회의 의도적인 작전에 따른 첫 경기종목은 열백마디의 교양사업보다 더 큰 실효를 나타냈다.

사업에서 이튿날부터 이채로운 팡경이 펼쳐졌다. 지금껏 시간이 없소, 건강이 어떻소 하며 체육사업에 낯을 잘 돌리지 않던 일군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건강태권도와 대중률동체조를 보급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군 하였다. 직장에서는 물론 집에 초청하여 개별지도를 받는 일군들도 있었다. 때로는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직심스레 동작을 익히였다. 그 나이에 전문가가 되겠는가고 하는 안해의 지청구도 듣는듯마는듯…

체육열풍은 소리없이 그러나 강렬하게 온 제강소를 휩쓸기 시작했다.

당, 행정일군들이 직접 자기 직장종업원들에게 건강태권도와 대중률동체조를 배워주었고 체육경기들에도 솔선 참가하였다. 당책임일군부터가 축구경기장에 나서고 나이많은 일군들도 배구장에서 땀을 흘리니 체육열기는 더욱 높아졌고 종업원들 누구나 체육을 사업과 생활의 뗄수 없는 한부분으로 여기게 되였다.

이 단위에서는 체육의 날 운영을 일군들의 건강태권도 및 대중률동체조판정으로부터 시작하는것을 판례화하고있다.

그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자신의 위치를 늘 자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일군들을 관람석이 아니라 경기장 한복판에 세워주는것으로부터 체육열풍을 일으킨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경험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탄부들의 어머니

개천시 알일동 64인민반 탁경옥동무

우리 어머니!

탄광직맹혜설강사로 일할 때부터 오늘까지 신립탄광의 탄부들은 탁경옥동무를 이렇게 부른다. 한것은 예나 지금이나 탄부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이 친어머니의 마음처럼 세심하고 뜨겁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느해인가 탁경옥동무의 생일이였다. 안해의 생일날이라 갖가지 특식들을 준비해놓은 김인철동무의 마음은 기뻤다. 집에서 가꾼 향기로운 꽃으로 다발을 만들어놓고 곱게 앉아있는 두 아들의 얼굴에도 시종 기쁨이 가셔질줄 몰랐다. 헌데 밤이 깊어 기다리던 아들들이 곯아떨어질 때까지도 안해는 들어서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김인철동무는 안해를 찾아 집을 나섰다.

전지불을 켜들고 마을오래길을 걷던 그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주오는 안해의 모습이 어려왔다. 이마에 줄땀이 흐르고있었다. 남편의 야속한 생각을 알아차린듯 탁경옥동무는 웃으며 말했다.

《래일 우리 철주랑, 철훈이랑 탄광지원가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떡쌀을 좀 봉느라구…미안해요.》

순간 김인철동무는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었다. 처녀시절 노래 잘 부르고 선동도 잘해서 탄광의 보배로 불리우던 그,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늘 탄부들을 위해 지성을 바쳐온 안해가 자기 생일날마저도 탄부들을 위해 밤길을 걸으니 더없이 고마웠다. 이튿날 탁경옥동무는 두 아들과 함께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안고 신립탄광의 탄부들을 찾아갔다. 그날 탁경옥동무는 혁신자탄부들에게 꽃다발도 안겨주고 축하의 노래도 불러주며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그는 20여년을 탄부들을 위해 그렇게 살았다.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그는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많은 문화기재들도 마련해주어 경제선동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고 고운 꽃들도 많이 가꾸어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모시려는 탄부들의 마음에 자기의 깨끗한 마음도 합치였다. 그런 그의 마음을 탄광의 일군들이 소중히 여겨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줄 때면 탁경옥동무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저보다도 탄을 캐는 탄부들을 더 내세워주십시오. 탄부들의 수고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이 무슨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조국을 위한 길에서 행복을 찾으며 한생 탄부들의 어머니로 살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 우리의 석탄산이 높이높이 쌓아지는것 아닌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은별

물결푸른 장자강기슭에 조선식합각지붕을 이고 선 인풍원은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 손꼽히지만 에네르기절약형의 봉사기지인것으로 하여 더욱 소문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얼마전 인풍원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향숙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돌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 인풍원에서는 실내온도는 물론 목욕탕과 수영장의 물온도를 전적으로 지열로 보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1층 실내수영장에 들어섰다. 수영장에는 맑은 물이 출렁이고있었다.

물속에 손을 잠그고 온도를 가늠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온도계를 가져다주었다. 물속에서 꺼낸 온도계의 수은주는 28℃를 가리키고있었다.

산간도시 강계시의 바깥기온은 낮아도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차있는 물의 온도는 28℃.

지배인은 우리에게 지열을 리용하여 겨울철에도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물온도를 늘 28~30℃로 보장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영장을 나선 우리는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여러 봉사실들에 들렸다. 훌륭히 꾸려진 봉사실들과 복도, 식당, 사무실 등 어디나 훈훈하였다. 벽에 걸린 온도계들은 20℃를 가리키고있었다.

우리는 지열을 리용하니 경제적실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층에 있는 어느 한 방에 들어섰다.

100㎡정도 되여보이는 방에는 크고작은 수지판들이 줄줄이 늘여져있었고 바닥에는 4대의 지열설비들이 있었다.

지열설비 한대의 전력소비는 생각했던것보다 적었다.

지배인은 이 지열설비들이 매일 땅속 8~12m의 깊이에서 많은 량의 지열수를 퍼올리며 인풍원의 실내온도와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물온도를 인체에 알맞춤하게 보장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만도 여러차례 인풍원 형성도안을 보아주시며 내부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잘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도당위원회에서는 전기보이라를 놓게 되여있던 설계를 대담하게 고쳐 지열랭난방설비를 갖추기로 하였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희천시의 어느 한 기계공장 기술자들이 인풍원의 랭난방보장면적을 확정한데 이어 그에 맞게 지열설비를 훌륭히 제작해냈다는것이였다.

4대의 지열설비를 갖추어놓은 인풍원에서 전기보이라를 놓기로 설계하였을 때보다 전기를 60%나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설비조작이 간편하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지열설비를 그쯘히 갖추고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인풍원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귀중한 창조물이였다.

인풍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열설비들의 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얼마전에 10여m의 땅속깊이에 지하뽐프장을 새로 꾸렸다고 한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자강도인민들이 즐겨찾는 인풍원은 지열수를 리용하여 겨울철에는 방안공기와 물을 덥히고 여름철에는 선선한 랭방을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전기절약형대중봉사기지였다.

인풍원을 나서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어디서나 인풍원에서처럼 지열을 적극 리용한다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것이며 나라의 귀중한 전기는 또 얼마나 절약될것인가.)

우리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며 인풍원을 나섰다.

특파기자 동세웅

독자의 편지

친혈육의 정 그대로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색갈고운 벽지도 바르고 비닐레자도 깔아주며 출입문도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후날 올라리도 번듯하게 새로 쌓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해마다 가을이면 석탄을 싣고와 구멍탄을 찍어주고 김장용남새와 양념감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이들은 혁명적인 도서들을 가져다주고 새로 나온 노래들도 배워주면서 제가 열정과 기백에 넘쳐 생활하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명절날과 기념일은 물론 휴식일에도 자주 저의 집에 찾아와 보약재와 생활필수품들도 안겨주면서 저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에도 자주 저의 집에 찾아와 가정형편과 건강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며 친어머니의 정을 기울이였습니다.

진정 친혈육과 같은 뜨거운 정을 느낄 때면 사회주의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에 눈굽이 젖어듭니다.

해주시 선산동 57인민반
영예군인 조정림

허튼 나발을 불어대는 일본의 속심은 무엇인가

일본에서 우리의 핵억제력보유에 대한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들이 왕왕 튀여나오고있다. 그 제창자는 일본의 외교 및 군사당국자들이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보장에 《위협》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마치도 우리때문에 지역정세가 악화되고있는듯이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일본은 이러한 내용을 얼마전에 발표한 《외교청서》와 《동아시아전략개관》에 조아박았다.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들의 주장은 정의와 부정의가 거꾸로 된 강도적론리이다.

일본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보유가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계에는 핵무기와 미싸일을 가지고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는 미국도 속해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위협세력으로 되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핵억제력과 미싸일만이 《위협》으로 된다는 가을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고있다.

원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해 따진다면 그 장본인은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무기와 미싸일을 가지고있는 미국이다. 힘을 만능으로 여기고있는 미국은 숱한 핵무기와 운반수단들을 세계도처에 배비해놓고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에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을 들이대고있다.

구태여 우리의 핵억제력보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부터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그에 대해 위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일본당국자들도 이것을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불보듯 뻔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설을 여론화하며 부잡스레 놀아대고있다. 일본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오직 적으로만 여기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동조하여 반공화국소동의 앞장에 선것도 일본이며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설을 내돌리며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것처럼 소란스럽게 놀아댄것도 다름아닌 일본이다. 최근에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설을 더욱 부각시키며 못되게 나오고있다.

하다면 일본이 무엇을 바라고 그따위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음흉한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들은 파거 패망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망상밑에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자위대》를 완비된 정규무력으로 만들며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군사대국화실현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군사비지출을 계통적으로 늘여왔다. 그 액수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막대한 군사비지출로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자위대》와 정규무력사이의 의미상차이는 없어졌다. 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해상무력을 가지고있으며 륙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륙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

일본은 해외침략이라는 전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해상《자위대》강화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투자를 집중하였다. 결과 이지스함, 호위함, 소해함, 잠수함, 대형수송함등 현대적인 전투함선들을 가지게 되였다. 《몰우에 떠다니는 미싸일기지》로 불리우는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의 원거리작전수행능력에서 주력을 이루고있다. 그 보유수는 세계적으로 손꼽히고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의 수준에 못지 않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반동들은 초음속순항비행능력과 높은 기동성, 스텔스성능과 종합전자체계를 다 갖춘 전략공격형전투기를 갖추기 위한 놀음을 벌리고있다. 작전반경을 대폭 넓혀 아시아에서 제공권을 장악하자는것이다.

일본은 량적으로도 임의의 시각에 수백만 대군으로 확대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일본이 유사시에 동원할 《징집대상자명단》을 갖추어놓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의 장교, 하사관비률은 50%이상으로 유지되고있다. 이것은 일단 사태가 조성되면 순식간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황군》을 릉가하는 방대한 규모의 무력을 편성할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기본목표의 하나인 핵무장화와 장거리미싸일개발을 다그쳐왔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망발들이 공공연히 튀여나왔다. 실지 핵무장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여왔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에 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를, 1995년부터는 핵무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일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는 핵폐기물이 나오고있다. 일본은 이것도 부족하여 지난 기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니움을 대량 끌어들이였다. 현재 일본이 비축하고있는 플루토니움량으로는 숱한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

일본은 핵무장화와 함께 그 운반수단개발에 힘을 넣어왔다. 우주개발의 미명하에 적지 않은 로케트들을 쏴올렸다. 이것들은 다 임의의 시각에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전환될수 있는것으로서 군사적목적을 위한것이다. 올해에도 일본은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우주기본계획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우주를 군사적목적에 직접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써넣었다. 일본은 순간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그 운반수단을 완성하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무시할수 없는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된 일본반동들은 자신심을 가지고 이제는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임의의 시각에 아시아에 대한 재침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이것은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에는 아시아나라들의 경계심을 눅잦히고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설이다. 일본이 우리를 걸고 아시아재침을 노린 군사대국화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대국화책동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의 첫번째 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보루로 거연히 솟아있는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지 않고서는 대륙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일본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꺼들며 반공화국소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행위를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며 아시아도 어제날의 아시아가 아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의 조국땅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고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것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일본이 떠드는 궤변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그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리 학 남

사상과 신념의 강군 — 조선인민군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에서는 좌담회가, 기네에서는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4월 23일과 24일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선군정치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기꼬련합총회사 행정관리 및 건설대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였으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조선인민군이 있어 조선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선군혁명령도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는 김일성대원수각하,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오스트리아단체 뷸레찐 발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에서 4월 24일 뷸레찐을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조선의 자주권을 담보하는 인민의 군대,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32년 4월 25일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였으며 1945년 8월 15일 일제침략자들을 항복시키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승리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위업을 이어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군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계신다.

인민군군인들은 자기의 최고사령관과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보위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파쇼적 탄압만행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은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5월 1일에만도 괴뢰패당은 196개 중대의 1만여명의 폭압경찰을 내몰아 평화적시위군중을 향해 독성이 강한 최루액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댔는가 하면 시위참가자들을 방패로 찍고 머리를 땅바닥에 짓조아놓는 등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하다 못해 수십명을 강제련행하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시위참가자들이 호흡곤난과 구토,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고 피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은 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잔악한 인권침해로 규탄하면서 그 진상조사를 유엔에 요청하고 《박근혜〈정권〉은 극악한 살인마, 인권교살자이다.》, 《박근혜를 끌장내자!》고 분노를 터치며 더욱 큰 규모의 대중적시위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치떨리는 탄압만행을 극악한 민주주의교살행위로, 란폭한 인권유린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단죄한다.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세차게 벌어지는 반《정부》투쟁은 반인민적악정과 《유신》독재부활로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은 괴뢰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박근혜패당이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광고하면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지금 남조선에서는 1%도 안되는 극소수 특권계층과 재벌들의 리익만을 절대시하는 괴뢰패당의 썩은 정치, 부정부패로 하여 절대다수의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다.

직업을 잃고 실업자, 반실업자가 되여 거리를 헤매고있는 사람들만 해도 1 500여만명에 달하고 850여만세대가 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있다.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어 세계적인 《자살왕국》으로까지 불리우고있겠는가.

생존권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인간생지옥에서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투쟁에 일떠서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야수적인 폭압을 가하고있는 것이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피멍이 든 가슴을 쥐여뜯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까지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감옥에 처넣는 괴뢰깡패무리들의 광란에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유엔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괴뢰패당의 야수적인 탄압만행과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실태,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문제시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신》독재를 릉가하는 가장 비렬하고 악랄한 반인륜적인 파쇼적폭거로서 남조선 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통치가 살판치는 최악의 인권불모지, 암흑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남조선을 이러한 인권의 가장 참혹한 페허지대로 전락시키고 파쇼총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가는 주제에 인간쓰레기들을 밖에 끌고나가 그 무슨 《북인권토론회》니 뭐니 하는 광대극을 벌려놓고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끌어들이겠다고 분별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인간백정의 무리, 인권교살자로 악명을 떨치는 괴뢰들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지금 괴뢰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감과 울분은 하늘에 닿고있다.

괴뢰패당이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에 계속 매달린다면 종국적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괴뢰패당의 탄압만행에 끝까지 맞서 싸울때만이 참다운 인권과 생존권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파쇼독재의 무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주체104(2015)년 5월 7일
평 양

로씨야대통령 파시즘타승의 력사적의의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국제회의 《단결로 이룩된 위대한 승리》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서한에서 파시즘을 타승한 력사적의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서한에서 이 경사로운 날을 맞으며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여 싸운 선렬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무비의 용감성, 완강성에 대하여 긍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나치즘을 격멸한 쏘련인민의 형제적단결은 력사에 빛나는 한페지로 기록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로씨야인민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며 전쟁로병들을 존대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의무는 승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었는가를 망각하지 말고 그 유산을 귀중히 여기도록 새 세대들을 교양하며 력사외곡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로 변모되는 타이

타이왕국은 아시아의 동남쪽 말라이반도의 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나라이다.

나라이름은 타이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자유로운 사람의 나라》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였다. 이전에는 샴이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1939년에 타이왕국으로 고쳐불렀다.

사람들은 타이를 가리켜 《코끼리의 나라》라고도 부른다. 그것은 이 나라에 코끼리가 많아서만이 아니다. 예로부터 이 나라 사람들은 코끼리를 《좋은 벗》으로, 국보로 간주하여왔다.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것은 농업이며 여기서 기본은 벼농사이다. 로동인구의 약 60%가 농업에 종사한다.

타이는 농업과 함께 공업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광업, 식료가공공업, 섬유공업, 전자자동화공업 등이다.

광업에서 기본은 석생산인데 타이는 석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타이는 해양국으로서 수산업 발전에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타이는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어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도로포장에 아스팔트와 고무를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포장재료를 리용하고있다.

새 재료로 포장된 도로는 유연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높은 기온에도 표면이 변형되지 않으며 쏠림힘이 강해져 잘 미끄러지지 않는 등 이전에 비해 그 질이 훨씬 높다고 한다.

타이는 아세안성원국으로서 동남아시아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올해에만도 타이는 캄보쟈와 경제분야에서 쌍무협정조를 강화할데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뿐만아니라 타이는 먄마에서의 특별경제지대개발사업을 다그치는데서 이 나라와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웰남과 외교, 투자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량해각서들을 채택하였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타이왕국 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 40돐이 되는 날이다.

림 원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운동

오늘은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모든 사람들은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인도주의적리념과 그 생활력에 대하여 되새겨보고있다.

력사적으로 세계의 많은 재난지역들에는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손길이 적지 않게 미치여왔다. 지금도 운동은 사람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창시자는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발단은 전쟁과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다.

1859년 이딸리아 북부의 쏠페리노지역에서는 프랑스, 이딸리아련합군과 오스트리아군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이 지역을 려행하고있던 스위스상인 앙리 듀낭은 전투현장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있는 부상당한 군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였다. 그 누구의 의료상방조도 받지 못하고 황량한 들판에 쓰러진채 죽어가고있는 부상자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아프고 피로웠다.

하여 그는 주변마을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부상자들에 대한 자원적인 구호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3년후인 1862년에 앙리 듀낭은 쏠페리노지역에서의 자기의 체험담을 적은 《쏠페리노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여러 나라들에 자원봉사자들로 구제단체들을 조직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적십자사업을 조직화하는 문제가 상정되게 되였으며 앙리 듀낭의 노력으로 1863년 10월 26일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오늘날 적십자국제위원회라고 부르는 《부상자들을 위한 국제구제위원회》가 창립됨으로써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처음 적십자국제위원회는 전쟁에 의한 군인 및 민간인피해자들을 보호구제하고 전쟁에 대처하여 의료일군을 양성하며 의료설비들을 준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후 적십자운동앞에는 전시뿐아니라 평화시기에도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사회복리증진 등 여러 분야들에서의 인도주의적과제들을 맡아 수행하며 여러 나라들에서 조직된 적십자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새로운 적십자국제기구를 내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이를 반영하여 1919년 5월 5일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이 조직되였다. 당시의 명칭은 적십자사련맹이였으며 1991년 11월 27일에 오늘의 명칭으로 바뀌였다.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그 어떤 정부적, 민족적, 정치적성격을 띠지 않으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이 운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적봉사, 단일성, 보편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하여 이 운동은 세계적범위에서 전쟁과 각종 무장충돌,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삼고 국제적 및 지역적협조와 련대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은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창시에 큰 공헌을 한 앙리 듀낭이 출생한 날인 5월 8일로 정해졌다.

련맹의 본부소재지는 제네바이며 《적십자 및 적반월》등 출판물을 발행한다.

우리 나라는 1956년 5월 11일 이 련맹에 가입하였다.

올해에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을 맞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다채로운 활동과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안 철 권

단평 도덕적저렬성의 극치

최근 일본집권자가 미국을 행각하였다. 그는 어느 한 강연과 기자회견, 오바마와의 회담시에 일본군성노예들을 《인신매매피해자》라고 표현하였는가 하면 성노예문제를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라고 력설하였다.

지난 시기 여러 일본집권자들이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말로 횡설수설하였지만 인신매매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늘어놓은 집권자는 없었다.

명백히 하건대 일본군성노예들은 그 무슨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군국주의일본이 강권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감행한 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이다.

인신매매라는것은 사람을 팔고 산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성노예라는것은 단순히 물건처럼 팔수 있다는것만이 아니라 녀성들을 완전한 성적노리개나 희생물, 마음대로 죽일수도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두 표현이 담고있는 차이는 엄청나다.

그런데 일본집권자는 성노예를 인신매매라는 말로 바꾸어써서 파거 일본이 강권으로 감행한 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모호하게 만들어 그 죄악의 엄중성을 약화시켜보려고 교활하게 시도하였다.

그것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뿐아니라 우리 조선인민, 일본의 죄악에 분노하는 세계 수십억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정치나 외교를 상업적방법으로 하는 일본집권세력이 파거범죄도 상업적성격이 짙은 표현들로 골라쓰는것만 놓고서도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세계가 일본을 극도로 리기적인 《경제동물》이라고 비평하는것은 일리가 있는것이다.

일본집권자가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들고나온것은 도덕적저렬성의 극치이다.

그런다고 일본의 파거죄악이 덜어지는것은 아니다. 일본집권세력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파거죄악을 감추어보려 할수록 국제적인 반일기운은 더욱 높아질것이다. 일제의 파거범죄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으며 청산되지 않은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리 경 수

과거죄행에 대해 반성할것을 일본에 촉구

《워싱톤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신문들이 최근 과거죄행에 대해 반성할것을 일본집권자에게 촉구하는 글들을 일제히 실었다.

신문들은 일본이 성노예문제를 비롯하여 과거에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본집권자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범죄력사를 한사코 부정하고있는 일본집권자를 환대하고있는 미당국자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일본에서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시위

농업과 축산업발전을 위한 노력

농업발전방향에 대해 언급

먄마부대통령이 1일 한 의식에서 농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여 재래식영농방법에서 벗어나는것이라고 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실행해나갈 정부의 립장을 강조하였다.

축산업발전에 힘을 쏟을것을 호소

앙골라 농업농촌개발상 뻬드루 깐가가 최근 나라에서 숱한 외화를 들여 해마다 10만의 고기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축산업부문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아프리카의 과학자들이 최근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의 틀거리내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강냉이, 락화생을 비롯한 농산물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검출하고 그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플라톡신에 의해 농작물의 25%가 피해를 입고있는데 아프리카지역에서 초래되는 년간손실액만도 약 6억 7 000만US$에 달하고있다.

과학기술소식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근육량의 증가와 유년시절의 운동

최근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근육량이 늘어나면 어린이들의 뼈가 보다 튼튼해진다는것을 밝혀냈다.

학자들은 어린이 200명을 대상으로 출생후와 6~7살때의 뼈조직의 광물질밀도, 정갱이뼈의 형태 및 크기, 몸상태를 평가하였다.

결과 뼈의 견고성과 크기가 전망적으로 골송소증과 골절발생위험에 영향을 주며 뼈량을 10% 늘이면 골송소증이 13년 늦게 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것은 육체운동을 유년시절부터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육체운동뿐아니라 여러가지 식료품들에 들어있는 비타민, 광물질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육량의 변화와 뼈조직생성사이의 련관성은 남성들보다 녀성들속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암세포와 어머니젖의 유익성

어머니젖이 애기의 성장발육에 좋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어머니젖이 암세포도 죽일수 있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은 방광암환자를 치료하던 과정에 어머니젖의 한가지 단백질과 지방산의 혼합물이 40여종의 암세포를 죽일수 있다는것을 발견하였다.

피부암과 뇌암을 비롯한 여러 암치료에서도 효력을 볼수 있는 이 혼합물은 건강한 세포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혼합물은 어머니젖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 애기의 위속에 들어가야만 생성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에서 반이스라엘시위

팔레스티나의 베들레헴시에서 2일 이스라엘의 탄압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많은 팔레스티나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기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기 위해 끊임없는 폭압조치를 취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시위자들에게 최루탄과 고무총탄을 쏘아대며 탄압소동에 광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71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